"발목 잡는데 달릴 수 있나"

노동시장 유연성 외면한 소득주도 성장 '한계'

점프! 커넥팅

기업의 氣 살리자

기업생산성 35→39위·노동 52→53위

제조업 고용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 효율성 분야 세부순위〉 /자료=IMD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효율성	20	26	28	26	28	29(⬆1)
-공공재정	9	24	25	20	19	22(⬆3)
-재정정책	18	17	19	18	15	17(⬆2)
-제도여건	19	25	25	25	29	29(-)
-기업여건	39	42	45	46	48	47(⬇1)
-사회여건	42	36	40	40	42	38(⬇4)

〈취업자 및 고용률〉 /자료=통계청

구분	2017년 4월	2018년 3월	증감	증감률	2018년 4월	증감	증감률
취업자	26,774	26,555	112	0.4	26,868	123	0.5
남 자	15,378	15,262	-9	-0.1	15,391	13	0.1
여 자	11,366	11,292	121	1.1	11,477	111	1.0
15~64세 고용률	66.6	66.1	0.0p	-	66.6	0.0p	-
남 자	78.3	75.6	-0.3p	-	76.0	-0.3p	-
여 자	50.8	56.6	0.4p	-	57.2	0.4p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사진/픽스타

4차 산업혁명으로 거대한 변화의 파고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규제개혁 강화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들이 바짝 몸을 움츠리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규제의 강화, 노동시간의 획일적 단축 등이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들의 기(氣)는 갈수록 죽어가고 있는 실태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적극적 성장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심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려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확대돼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 전문가들의 걱정은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시장에서 고삐를 조이는 규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외면한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에 열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1.4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신호다. 경제팀에서는 그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고, 주 최대 52시간 근무는 법 개정 손질을 마치고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노동 개혁이 오히려 기업들을 움츠리게 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근로시간 단축, 야근 잦은 업계 '비상'
인력 추가 고용도 한계, 기업 부담⬆
임금, 성과·직무급 체계로 개선 필요

올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생산성·재정정책 등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기업 효율성 부문 중 생산성과 노동시장은 각각 35위에서 39위, 52위에서 5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과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해 기업의 생산성이 약화됐다는 평을 받은 셈이다.

고용시장은 살얼음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기업들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이 늘면서 3개월째 10만명 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장기간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다르게 말하면, 금융위기 시절과 같은 '고용 쇼크' 상황과 같은 셈이다.

특히 지난달 한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의 허리를 담당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고용 지수는 49.3으로 나타나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수별로 50 미만일 경우 인력 감축이 이뤄졌음을 뜻한다.

주 52시간 근무도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특히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인 근무 시간 적용이 문제로 꼽힌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업무 장소와 고용 형태, 시간이 자유로워 근무 시간을 규제한 정부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시간의 취지는 좋지만 ICT 기업의 경우 전통적 산업과 달리 시시각각 이슈에 촉각을 기울이고, 단기간으로 완수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많아 바짝 일을 하는 밤샘근무 등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인력을 많이 채용하면 해소될 문제일 수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답은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방향 선회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37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유연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노사 간 협력에서 130위, 정리해고 비용에서 112위, 임금결정 유연성에서 62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존 전통 산업에 종사하던 인력을 신산업으로 넘길 수 있는 인력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선진국은 노동 유연성을 위한 개혁조치에 착수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병 독일은 2015년부터 '노동 4.0'이란 이름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을 강화하고 채용이 쉽도록 계약직·파견근로·해고 등의 규제를 줄였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갖추지 않고 노동시장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 생산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럽 최대 컨설팅업체인 롤랜드 버거의 이수성 서울사무소 대표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한국 정부의 현 노동정책은 기업의 막대한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를 초래한다"며 "근로 안정성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임금체계는 연공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에서 성과급·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선하라"고 제언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A to Z' "혁신 서비스로 창업 氣 살려요"

위워크랩스 亞 최초 한국 론칭

"韓 스타트업 적극 지원할 것"

위워크(WeWork)가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센터인 위워크랩스(WeWork Labs)를 1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론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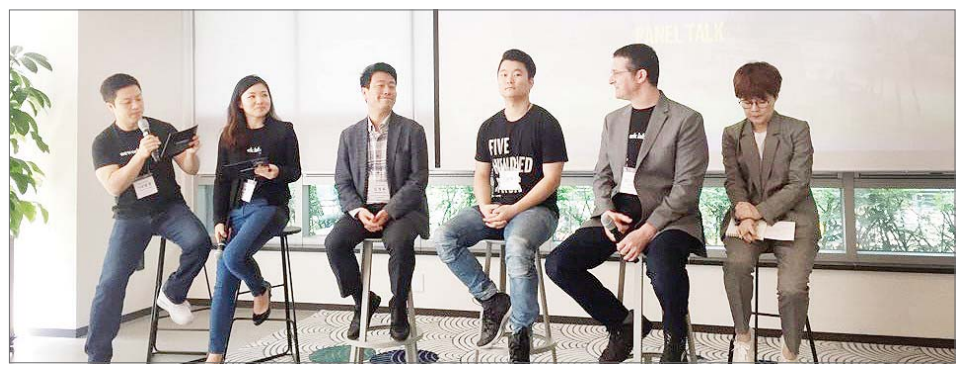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워크랩스 글로벌 총괄을 맡은 로이 애들러는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온 전통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기술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끊임없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창업가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위워크랩스는 한국의 창업가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 론칭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위워크는 크리에이터에게 공간과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 플랫폼이다. 위워크랩스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성공을 위한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간 제공을 넘어서 한국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워크랩스는 전 세계 약 25만명의 위워크 커뮤니티 멤버들을 기반으로 한국 초창기 스타트업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위워크랩스에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입주사들을 돕는다. 직원 채용에서부터 비즈니스 브랜딩에 이르기까지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원과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펀딩 유치 방법, 마케팅, 회계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강좌와 1:1 교육 기회가 마련된다.

위워크랩스 코리아 총괄로 임명된 사무엘 황은 "위워크랩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타트업들에 필요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이들이 위워크 커뮤니티에 가져올 커다란 파급효과를 확신한다"며 "위워크의 국내 성장에 발맞춰 위워크랩스를 한국 비즈니스와 스타트업 산업에 크게 기여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워크 랩스' 론칭 미디어 데이 패널토크에 참석한 사무엘 황 위워크 랩스 코리아 총괄, 이재연 위워크 랩스 코리아 매니저,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팀 채 500스타트업코리아 대표파트너, 로이 애들러(왼쪽부터).

이날 패널 토크에 참여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한국 스타트업에 새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300개가 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위워크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500스타트업코리아 대표파트너인 팀 채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나가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것이 위워크 랩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워크는 2010년 뉴욕에서 설립됐으며 현재 전세계 22개 국가, 74개 이상의 도시에 253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약4만개의 입주사와 24만8000명의 멤버를 보유하고 있다.

위워크랩스는 국내 위워크 지점 중 역삼역점II, 을지로점, 여의도역점에 1일 오픈을 시작으로 선릉역점에는 다음달 1일 오픈한다.

/글·사진=구서윤 기자 yuni2514@